

조선시대 결성읍성(結城邑城) 연구

김 회 정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수료,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원)

이 정 수*

(공학박사, 충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주제어 : 읍성, 조선시대, 결성읍성, 복원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주변국으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아왔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많은 성곽들이 조성되었다. 특히 국경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음은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말까지 관방시설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던 성곽은 일제강점기 이후 근현대에 이르러 급변하는 군사적,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훼손되어가기 시작했다.

산성의 경우와 달리 읍성은 20세기 초, 조선시대 말까지 행정치소와 관방시설로서 그 기능을 유지하며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거점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는 1909년에서 1915년까지 전국적인 고적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전통건축 및 유적, 유물의 소재와 가치파악은 물론 조선의 국가통치의 상징적 시설이었던 관아 철거를 위한 근거를 만들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많은 수의

관아시설들이 이 시기에 군청, 경찰서, 학교 등으로 변용되었다.¹⁾

당시 많은 읍성들이 철거되어 도로가 개설되거나, 성벽돌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져 제방의 축대 또는 신작로 개설에 사용되는 등 급격하게 훼손되어갔다.

이러한 훼손일로의 성곽문화재는 1970년대 이후 지표조사를 통해 각 지역에 분포한 성곽과 문헌기록상의 성곽을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각 지역별 성곽발굴 조사를 통해 점차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게 되었다. 이후 각 지역별 성곽에 대한 정밀지표 조사와 발굴조사가 꾸준히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자료와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성곽의 보존 및 정비 복원 방안에 관한 연구들도 계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읍성(邑城)은 이러한 성곽문화재 중 조선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나타난 성곽으로 지방의 부(府), 군(郡), 현(縣) 등의 행정관서가 마련된 고을에 유사시에 외적을 대비하기 위한 군

* 교신저자, 이메일: essence@cnu.ac.kr

1) 한삼건, 「일제강점기 읍성과 읍치의 변용」, 건축역사연구, 제16권, 5호, 2007, 169쪽

8 논문

사적 목적과 동시에 행정적인 편의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한 성곽을 말한다.²⁾

읍성은 조선시대 지방행정도시로서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의 중심지였으나 일제강점기 민족문화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읍성과 관아는 철저히 훼손되어 졌다. 충청도지역에만 조선후기 읍치소(군, 현, 목, 군영 포함)가 있었던 지방행정도시는 총 54개소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나 이 시기 대부분이 면소재지 이하의 마을로 쇠락되었다. 이러한 쇠락의 과정에서 읍치소의 관아시설물들과 읍성 등 여러 시설들이 훼손 또는 멸실되었으며, 현재는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결성읍성은 조선초기 연해읍성의 축조과정, 읍치의 이전(移轉), 이전(以前) 시기부터 사용되어 오던 산성을 개축하여 읍치로 사용한 점 등은 조선초기 축조된 여러 연해읍성들 중에서도 독특한 특징을 지닌 성곽문화재라고 할 수 있다.³⁾ 하지만 역사적 가치에 비해 문화재 지정이나 연구가 미약하고, 다양한 요인에 노출되어 훼손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연구와 기록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결성읍성의 원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초창기 읍치의 이전 축조 과정의 이유를 밝히고, 읍성 및 관련시설의 장기적인 보존은 물론 복원을 위한 고증자료의 조사분석을 통한 적절한 복원 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우선 조선시대 읍성의 축조와 관련된 시대적 흐름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성읍성의 특징인 읍치의 이전설치에 관한 이유를 분석하였다.

2) 손영식, 『한국의 성곽』, 주류성, 서울, 2009, 117쪽

3) 차용걸, 「고려말·조선전기 대패 관방사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8, 101쪽

다음으로 각종 고문헌과 근현대 자료 등을 토대로 복원의 기초근거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결성읍성의 성곽시설물 및 성내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결성읍성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이자 자료가 가장 잘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후기를 기점으로 성내시설물 및 성곽시설들에 대한 복원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2. 조선시대 읍성축조와 결성읍성

2-1. 조선시대 읍성축조

조선시대 초기 한반도 중부이남지역의 계속되는 왜구의 침탈은 연해읍(沿海邑) 관방시설(關防施設)의 본격적인 정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⁴⁾ 태종대의 설진(設鎭), 설영조치(設營措置)⁵⁾, 세종대의 축성신도(築城新圖)⁶⁾ 등

4) 심정보, 『한국 읍성의 연구』, 초판, 학연문화사, 서울, 1995, 49~98쪽

5) 차용걸, 전계서, 172쪽. 태종대에 이르러 대외관계의 개선과 국내의 사회안정은 연해지역으로의 새로운 개척을 유도하게 되었으며, 이전시기부터 사용되던 산성의 유리함을 내세워 고협산성(高險山城)을 중심으로 한 청야입방책(淸野入堡方策)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방책은 소극적인 방어책으로 왜구가 내륙까지 침입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태종 6년과 7년에 설진조치(設鎭措置)와 설영조치(設營措置)를 통해 하삼도의 연해지역 진영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진행되고 군제가 보강되게 되었다 이 시기(태종10년)에 경상도와 전라도에 각각 6개의 대규모 산성이 수축되었다.

6) 축성방법의 규격화와 이를 감독하는 도체찰사로 최윤덕(崔潤德)을 파견하여 성보(城堡)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게 함으로 인해, 이 시기에 축조된 하삼도의 연해읍성은 그 입지조건이나 구조 및 축조기법 등이 거의 유사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1437년(세종 20)에는 축성신도(築城新圖)를 반포하여 공식화하였으나 1438년(세종 21)까지 계속된 흉년으로 완축하지 못하게 되자, 최윤덕은 1439년(세종 22) 3월에 왜구가 화포를 사용하지 못함을 들어 읍성과 적대를 제외하고 축성하는 방법을 통해 민력을 덜어 연해읍성을 빨리 축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제안은 1441년(세종 24) 7월에야 읍성·적대 및 해자를 일시에 축조하지는 않으나 제외하지는 않고 점차 축조하여 나가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이



<그림 1> 조선 후기 읍성의 분포(1860년대)

을 반포하여 체계적인 축성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문종은 세종대의 축성계획을 그대로 이어 받아 추진하는 한편 지방관으로 이원화되었던 축성 감독까지도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하삼도 연해읍성에 대한 완축을 도모하는 한편 인구가 밀집된 방어취약지에도 책(柵), 보(堡)를 축조함은 물론 수군의 영(營), 진(鎭)에도 축성을 시작해 중종대에는 대부분 축성이 완료되었다.

조선초기부터 활발하게 축성된 읍성은 왜구의 주요 침탈대상이 되었던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평야지대가 발달한 삼남지방에 같은 시기에 유사한 규모와 구조로 집중되어 축조되었으며 이시기에 결성읍성도 이전과 확장 등의 과정을

때 연해읍성의 완축 이후에 내지의 읍성도 축조하기로 결정하였다. 9월에는 공역규칙을 정하여 좀 더 체계적인 축성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

7)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96개소의 읍성 중 62개소(64.6%)가 하삼도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후 16세기까지 꾸준히 읍성축조가 증가하다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그 수가 감소하여 초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조선시대 시기별 읍성현황⁷⁾

구분	행정구역	읍성수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335	96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330	160
여지도서(1757년)	334	107

거치면서 완축되었다.

2-2. 조선시대 읍성의 특징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초기 공역규칙을 따른 읍성들은 위계 또는 주민의 수, 축성지역의 지형적 영향에 따라 차이는 다소 있지만 일반적으로 둘레의 길이가 3,000척 내외의 길이와 10~15척의 체성과 높이 3~4척, 폭 2~3척 규모의 여장을 설치하였으며, 주요기점에 치와 장대를 두어 방어하였다.⁸⁾ 또한 출입시설로 동서남북 각 방향별 문과 문루 등을 여건에 맞게 선택적으로 설치하였으며, 옹성, 적대 등으로 방어취약점을 보완하였다.

조선시대의 군현(郡縣)의 치소에는 지정학적 필요에 따라 성곽을 선택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지방관아의 구성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읍지 및 각종 지리지에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아 실례를 찾아보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표 2] 일반적인 읍치시설구성

구분	주요시설명
객사시설	객사
관아시설	동헌(관아), 책실, 내아(아사)
행정시설	향청, 질청, 현사, 관노청 등
군사시설	군관청, 마방,
기타시설	각종 창고 및 취수시설 등
성곽시설	성벽(체성), 여장, 옹성, 치, 장대, 적대, 해자(황, 호) 등
출입시설	동서남북문, 암문, 문루 등
제사시설	여단, 사직단, 성황단(성황사) 등
교육시설	향교(문묘)
창고시설	해창(관창), 사창 등
기타시설	시장 및 주변마을

8) 손영식, 전계서, 125쪽

10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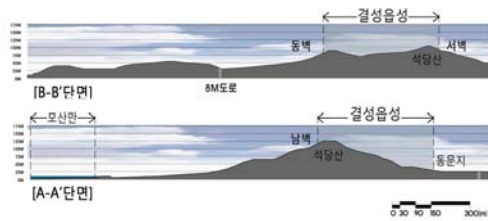
읍성 관련 시설에 대한 분류는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3. 결성읍성⁹⁾의 이름

결성읍성은 결성면 읍내리 산 28-2번지 일원에 위치한 읍성으로 결성주민자치센터의 남서쪽 석당산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지형조건을 활용해 능선을 따라 성벽을 조성하여 동벽과 북벽 일부가 평지에 접근된 성곽¹⁰⁾이다. 석당산 정상(해발 146m)에서는 서쪽으로 모산만, 천수만, 안면도 등이 조망된다.

조선시대 결성현은 경국대전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관제에 따라 중 6품의 현감과 병마절제도위가 파견되어 관할하던 곳으로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결성읍성은 천수만일대의 곡창지대를 왜구로부터 보호하던 주요 거점으로 홍주목(홍주성)과 충청수영성의 배후에 위치한 읍성이다. 하지만 고려말에서 조선초기에 걸쳐 읍치소의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고증자료는 없지만 여러 정황들을 통해 이름의 이유를 추론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평지성이었던 신금성¹¹⁾은 당시



<그림 2> 지형단면도



<그림 3> 결성읍성 위치도

이 지역에 창궐했던 왜구의 침탈에 대한 방어적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취약점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방어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산성의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인근의 석당산성으로 치소를 이전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¹²⁾

또한 성의 주변은 조선초에 대대적으로 농지개간이 이뤄진 해안지역으로 농경지가 늘어나 농사짓기에 적합하게 되면서 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난 지역이다. 주변지역의 인구 증가로 인해 유사시에 읍성 내로 불러들여 보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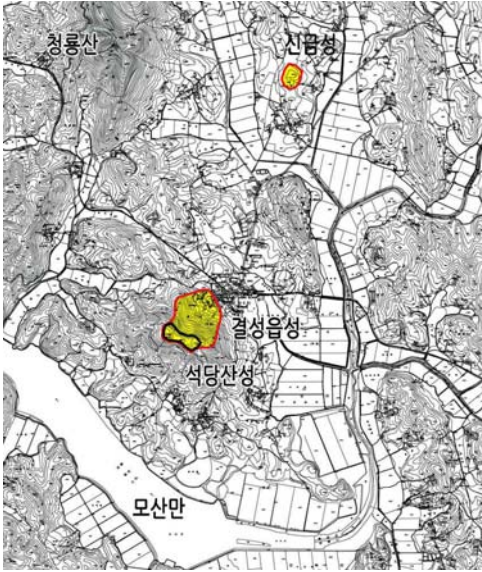
9) 결성현은 현 홍성군 결성면 지역으로 역사적으로 삼한시대 마한의 '고비리국(古卑離國)'에 속한 지역으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고려시대까지 서해안의 주요 행정 중심지였으며 신금성에 위치하였던 것이 고려말, 조선 초기에 현재의 자리로 이주하였다.

10) 성곽은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는데, 결성읍성은 읍성, 행정성, 평산성, 해안성, 석성, 폐합성, 혼합형성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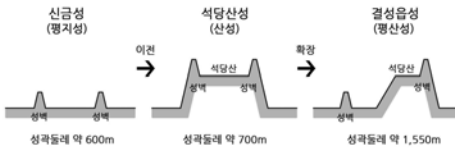
11) 충남대학교 백재연구소, 「홍성군 결성지역 지표조사보고 1」(신금성지, 결성읍성편), 충남대학교출판부, 대전, 1987, 267~280쪽. '신금성(紳衿城)'은 결성면 금곡리 원금곡 마을 배후의 낮은 구릉에 위치한 토성으로 '新增東國輿地勝覽' 결성현 고적조에 '紳衿城 在縣北五里土築周一千三百五十尺 今廢', '충청도읍지'에 '舊邑在北距五里 紳衿城 洪武己卯以邑此(建置沿革條)'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결성현지' 건치연혁조의 '洪武三十年丁丑 移邑紳衿城 建文二年庚辰 以邑山城'라는 기록을 근거로, 1400년(태종 즉위년)경에 신금성에서 석당산성으로 읍치를 옮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토성이 위치한 구릉은 동서길이 220m, 남북길이 약 220m의 정방형에 가까운

토루처럼 보이지만, 남벽은 내성과 외성의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전체둘레 길이는 약 600m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결성읍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 고문헌 기록을 근거로 분석한 연혁과 석당산 정상부의 건물지와 수구지에 대한 조사와 일부구간의 실측도, 전체배치도, 수습유물 등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나, 배치도의 정밀도가 낮고 내부 시설들에 대해서는 소략하게 정리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조사를 바탕으로 석당산성과 결성읍성과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고고학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12) 충청남도, 「문화유적분포지도(홍성군편)」, 2002. 결성읍성 및 신금성을 중심으로 반경 5km이내에는 조사, 확인되는 산성이 없다.



<그림 4> 신금성, 석당산성, 결성읍성



<그림 5> 결성읍성 변화과정 모식도

야 할 인구가 신금성과 석당산성의 규모로는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음을 또한 짐작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넓은 면적의 성곽시설이 요구되게 되면서 석당산 정상부의 석당산성¹³⁾

13) 충청남도, 「문화유적총람」(성곽분야편), 1991, 222~223쪽. 결성읍성의 남벽이 위치한 석당산(石堂山)의 정상부는 동서방향을 장축의 마안형 대지가 형성되어 있다. 규모는 대략 동서 300m, 남북 최대폭 약 150m 정도로 삭토에 의한 토루형의 테뫼식 성지유구가 남아 있으며, 이 토루는 현재 남아있는 결성읍성(석축)의 해자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둘레는 약 700m이고, 성내에는 곳곳에서 건물초석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석재가 노출되어 있거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초석군이 형성되어 있으며, 문의 초석으로 보이는 가공된 석제도 보인다. 정상부의 동북쪽 계곡을 향하여 낮아지는 지점은 수구(水口)가 되는 동시에 동향하여 돌아가도록 좌우의 성벽이 연결되어 있어, 이곳이 석당산성의 출입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성내의 곳곳에서는 조선시대의 유물 이외에 백제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선조문 와편 및 회청색 경질토기편, 적갈색 연질토기편이 적지 않게 수집되고 있어, 석당산성은 백제

을 확장, 개축하여 구릉지역까지 포함한 현재의 결성읍성이 문종대에 완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왜구의 침탈을 대비하는 방법 중 조기에 왜구의 침입을 감지하게 되면 이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져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바다로부터 접근하는 왜구를 감시할 수 있는 망루 또는 장대의 기능이 있는 석당산성은 매우 적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반의 상황들은 조선초기 연해읍성의 축성정책과 맞물려 현재의 결성읍성의 모습으로 완성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3. 고증자료의 조사분석

3-1. 고문헌자료 14)

결성읍성에 대한 조선시대 기록은 ‘築忠淸

시대에 초축되어 내려오다가 1400년(태종 즉위년)경에 왜구에 대한 방어책으로 산성의 효용성이 강조되면서 신금성에 있던 읍치가 이 산성으로 옮겨진 것으로 판단된다.

14) 고문헌 자료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世宗實錄地理志 結城縣條：“邑石城 周回四百五十三步 內有井 冬夏不竭”

新增東國輿地勝覽 結城縣 城郭條：“邑城 石築 周三千三百二十五尺 高九尺 內有六井”

東國輿地志結城縣 城郭條：“縣城 石築 周三千三百二十五尺 內有六井”

輿地圖書 結城縣城池條：“邑城 石築周回以尺計之則三千三百二十五尺八寸 以丈計之則三百三十二丈五尺八寸 步計之則五百五十四步一尺八寸 高以尺計之則十四尺 以丈計之則一丈四尺 以步計之則二步二尺 塚無擁城二 曲城一 東西二門而東門樓一層 西門無樓閣”

忠淸道邑誌 結城縣 城池條：“邑城 石築 周回三千三百二十五尺八寸 以古之山城 道內列邑築城之 各各記刻役築形之 而幾盡崩 頽 有六井”

結城縣誌 建置沿革條：“洪武三十年丁丑 移邑紳衿城 建文二年庚辰 以邑山城”

大東地志 結城縣 城池條：“邑城 周三千三百二十五尺 井六”

이상의 고문헌 기록에 나타난 결성읍성에 대한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 조선후기 고지도에 나타난 결성읍성 및 주변시설

지도명	여지도	해동지도	지승	광여도	1872년 지방지도
제작시기	1736~1767	1750년대 중반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	1872
성곽	석성	석성, 여장	석성, 여장	석성	석성, 여장
성문	동문-문루, 홍예	동문-문루, 홍예	동문-문루, 누문	동문-문루, 홍예	동문-문루, 누문
건물	객사(客舍), 아(衙), 창(倉)	객사(客舍), 아사(衙舍)	객사(客舍), 아사(衙舍), 창(倉)	객사(客舍), 아(衙), 창(倉)	객사(客舍), 내아(內衙), 동헌(東軒) 등
주변 시설	향교(鄕校)	향교(鄕校)	향교(鄕校)	향교(鄕校)	향교(鄕校), 신당(神堂), 성황단(城隍壇) 등

道結城縣城 (文宗實錄 卷十 文宗元年 十月 甲午條)’이라 하여 1451년(문종 원년) 10월 29일에 결성현성이 축조되었음이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아니라 각종 지리지 및 읍지 등에 규모와 시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읍성이 석축이며 성 둘레가 453보(步)였음을 기록하고 있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그 이후의 지리지에서는 모두 3,325척(尺)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고읍성(古邑城)인 석당산성(石堂山城)과 신금성(紳衿城)이 모두 토성(土城)임을 감안할 때 용척(用尺)의 차이는 있으나 같은 읍성을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¹⁵⁾

결성현지에 의하면 1397년(태조 6년) 신금

문헌 명	성곽길이	성곽높이	성문	웅성	곡성	우물
세종실록지리지	453보	-	-	-	-	유
신증동국여지승람	3,325척	9척	-	-	-	6개
동국여지	3,325척	-	-	-	-	6개
여지도서	3,325척 8촌	14척	2개	2개	1개	-
충청도읍지	3,325척 8촌	-	-	-	-	6개
대동지지	3,325척	-	-	-	-	6개

15) 박흥수의 “한국도량형제도사”의 연구를 근거로 세종대의 포백척(1척=46.73cm)을 적용하면 성곽의 길이 3,325척은 총 1,554m로 실측결과와 거의 동일한 규모로 확인되나, 세종실록지리지의 453보는 일반적으로 1보를 6척으로 보는 것을 감안할 때 총 2,718척, 세종대의 포백척을 적용할 때 약 1,270m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결성읍성의 축조에 사용된 용척을 포백척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으나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성으로 읍치를 옮기고, 1400년(태종 즉위년)에 석당산성으로 읍치를 옮긴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신금성에서 3년 만에 바로 읍치를 산성으로 옮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충청도읍지에는 ‘읍성은 석축으로 둘레가 3,325尺 8寸으로 옛 산성을 도내 각 읍이 나누어 축성하였다’고 하고 있어, 산성을 개축하여 읍성으로 삼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문종실록에 나타난 ‘1451년(문종 원년)에 결성현성이 축조되었다’는 기록은 1400년에 석당산성으로 읍치를 옮긴 후 51년만에 결성읍성이 완축됨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충청도읍지에 옛 산성을 새로이 개축하면서 도내 각 읍의 나누어 축성할 때 구간마다 ‘기각역축(記刻役築)’하여 나타냈다고 하는 바, 실제로 북쪽 성벽의 일부에 아산지역의 축성구간을 표시한 석각이 남아 있다.

한편, 여지도서에는 성체의 높이를 14尺으로 기록하고 있어 신증동국여지승람과 5尺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체성을 대대적으로 수리하여 높였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지도서에는 성문에 대한 기록도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결성읍성은 동·서에 2개의 문이 시설되었으며, 동문의 문루는 1층이나 서문은 누각을 시설하지 않았다고 한다.

[표 4] 조선후기 결성읍성 성내 시설물에 대한 고증자료 종합 비교

명칭	결성현 지도 (1872)	여지도서 (1757~1765)		충청도읍지 (1757년 이후)		현재	
		명칭	규모	명칭	위치	명칭	규모
동문(東門)	○	賓日樓	3칸	振衣樓	-	-	-
객사(客舍)	○	潔城館	41칸	潔城館	-	-	-
동헌(東軒)	○	望日軒 (외동헌)	3칸	望日軒 (외동헌)	-	-	정면5칸×측면4칸 (홀처마 팔작)
아문(衙門)	-	-	-	-	-	潔城衙門	숫을삼문
내아(內衙)	○	平近堂 (내동헌)	5칸	平近臺 (내동헌)	-	-	-
외동헌(外東軒)	○	-	-	-	-	-	-
형장청(刑將廳)	○	-	-	-	-	刑房廳	ㄱ자형 건물 (홀처마, 팔작)
작청(作廳)	○	-	-	-	-	-	-
향청(鄉廳)	○	-	-	-	-	-	-
현사(縣司)	○	-	-	-	-	-	-
책실(冊室)	○	-	-	-	-	冊室	정면2칸×측면1.5칸 (홀처마 우진각)
장방(長房)	○	-	-	-	-	-	-
급창방(吸唱房)	○	-	-	-	-	-	-
쌍괴당(雙槐堂)	○	-	-	雙槐堂	관아 후편 (在衙後南潤覆)	-	-
환미고(還米庫)	○	-	-	-	-	-	-
수미고(需米庫)	○	-	-	-	-	-	-
대동고(大同庫)	-	-	-	大同庫	망일헌 앞 (望日軒前)	-	-
천지고(天地庫)	-	天地庫	6칸	地字庫 天字庫	망일헌 앞 (望日軒前)	-	-
현자고(玄字庫)	-	玄黃庫	6칸	玄字庫	망일헌 앞 (望日軒前)	-	-
진휼고(賑恤庫)	-	賑恤庫	2칸	-	-	-	-
공고(工庫)	-	-	-	工房庫	평근당남쪽 (平近堂南)	-	-
군기고(軍器庫)	-	-	-	軍器庫	객사 아래 (客舍下)	-	-
화약고(火藥庫)	-	-	-	火藥局	성 내부 (城內)	-	-

※ 고문헌 및 고지도에 건물이 나타난 것은 '○', 나타나지 않는 것은 '-'로 나타냄

읍성의 규모 및 연혁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대부분의 지리지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반면 읍성 내 건축물에 관한 자료는 그 수가 적은데, 기록이 상세하게 남아있는 고문헌으로 여지도서(輿地圖書)와 충청도읍지(忠淸道邑誌)-결성읍지(結成邑誌)가 있다.

여지도서는 1757년~1765년까지의 기록을 합한 것으로 공해조(公廩條)에 ‘潔城館 客舍四十一間 平近堂 內東軒五間 望日軒 外東軒三

間’라고 하여 객사, 외동헌, 내동헌의 이름과 규모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누정조(樓亭條)에서는 ‘賓日樓 邑城東門樓 三間’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동문의 명칭 및 규모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창고조(倉庫條)에서는 성내에 위치했던 창고 및 해창 등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충청도읍지는 1757년 충청도 결성군에서 이전의 읍지를 개수, 편찬한 것을 뒤에 다시 필

14 논문

사한 것으로 정확한 간행년도는 알 수 없으나 1757년 이후의 기록임을 추측할 수 있다.

충청도읍지에는 관우조(館宇條), 누정조(樓亭條), 창고조(倉庫條) 등에 성 내 건축물의 명칭 및 위치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 여지도서의 내용을 보완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관우조에는 객사인 결성관(潔城館)의 편역사실과 중수기를 적은 내용 및 연혁 등을 상세히 적고 있다.

사묘조(祠廟條)에는 성황신사, 성황단, 사단, 읍신당 등이 성 내외부에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여지도서의 단묘조(壇廟條)와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단묘조의 내용을 보완해 보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특히 ‘城壇壇在城西門外’라 하여 서문에 관한 내용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지도서와 충청도읍지는 그 내용에서는 서로 일치하거나 보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나 기록된 일부 건물의 명칭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동문으로 여지도서에서 동문은 ‘빈일루(賓日樓)’라 기록되어 있으나 충청도읍지에서는 ‘진의를(振衣樓)’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기록된 년대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동문의 명칭이 바뀌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창고에서도 명칭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천지고(天地庫)’, ‘현황고(玄黃庫)’로, 이들 건물은 후대에 ‘천자고(天字庫)’ 혹은 ‘지자고(地字庫)’, ‘현자고(玄字庫)’ 등으로 개칭된 것으로 보인다.

3-2. 고지도자료

읍성의 성곽이 확인 가능한 고지도 자료는 여지도(輿地圖), 해동지도(海東地圖), 지승(地乘), 광여도(廣輿圖), 결성현지도(結城縣地圖) 등 18세기 이후 즉, 조선후기에 제작된 지도들



<그림 6> 1872년 지방지도 결성현지도(부분)

이다. 당시 지도제작은 여장의 표현, 출입성문의 형식 등 간단한 성곽표현과 성내 주요 시설인 객사와 동헌을 표현하는 정도이며, 일부 지도에서는 성외부의 향교를 함께 표기하고 있으나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다.

다만, 1872년 지방지도 결성현지도¹⁶⁾는 여타의 지도들과 비교하였을 때 성의 축조방식이 평지읍성처럼 단순하게 표기하지 않고 지형을 고려하여 산성과 평지성을 조화롭게 축조하였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과 성 내부 시설물에 대해 객사, 관아 그리고 향교정도에 한정되어

16) 1872년에 흥선대원군에 의해 전국적인 차원에서 추진된 지도제작 사업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당시 제작된 지도는 총 459매로 알려져 있으며, 작성된 연대로 인해서 ‘1872년 지방지도’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결성현 지도는 지도표기방식에 있어 현대지도의 제작 방식과 달리 물리적 향(자북)을 기준으로 작성하기보다 동문을 정문(주진입문)으로 인식한 이 지역 주민들의 공간인식에 맞춰 제작되어 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석당산, 모산만, 향교, 정려 등의 위치 등을 현대지도와 비교하여 보면, 지도의 장축(세로)이 동서방향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또한 성의 전체적인 지형 표현 역시 석당산을 중심으로 서고동저형의 지형과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동쪽 평지를 중심으로 관아시설들이 배치되어 있음 또한 현재와 다르지 않다. 1872년 지방지도의 이러한 제작 방식은 홍주지도, 연산현지도 등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있던 것과 달리 상세하게 표기하고 있다. 성내 시설물로는 객사(客舍), 군기고(軍器庫), 급창방(吸唱房), 내아(內衙), 동문(東門), 동헌(東軒), 수미고(需米庫), 외동헌(外東軒), 작청(作廳), 장방(長房), 책실(冊室), 현사(縣司), 향청(鄉廳), 형장청(刑將廳), 환미고(還米庫) 등이 주변 담장, 문과 함께 표기되었다. 성곽 주변 시설도 표기하였는데 향교(鄉校), 신당(神堂), 성황단(城隍壇), 사단(社壇), 해장(海倉), 호자고판관장공명역처열녀배씨병정문(孝子故判官張公溟翊妻烈女裴氏并旌門) 등을 표기하고 있어 주변 시설들에 대한 정보를 함께 가지고 있어 현재까지 알려진 고증자료 중 지도제작 당시 결성읍성의 정보에 대해 가장 상세하게 다룬 매우 주요한 사료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동헌, 객사 등의 위치표시가 현재와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점인데, 이는 기타 건물들의 위치관계를 파악하는 자료로서 큰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담장의 구성, 문루의 유무, 동문의 형식, 창고건물 등의 간단한 건축적 특징만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일 뿐 건축물의 정확한 규모 및 양식 등의 파악을 위해서는 발굴조사를 통한 보다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3-3. 근현대자료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 지방 통지사설인 읍성과 그 내부의 관아, 객사 등의 시설은 일제강점기 대부분 다른 기능시설로 전환하여 사용하면서 훼손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제가 남긴 몇몇 자료들을 통해 훼손직전의 결성읍성의 본 모습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훼손된 성곽시설에 대한 자료로 흥성지역의 토지조사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소유관계 및 지적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지적도 일부에 토지의 소유자가 함께 표시되어



<그림 7> 일제강점기 지적도

있어 이를 확인한 결과 성안지역은 대부분의 토지가 국유지로 객사를 초등학교로 변용하기 이전의 성벽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지적도 상에 나타난 동문바깥 옛 골목길이 현재까지 남아 있어 성 밖 저자의 옛길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림 7)

또한 객사는 일제에 의해 학교로 변용되면서 주요 구조부를 제외한 부분은 개조하여 새로운 기능에 맞게 개조하여 사용하였음을 사진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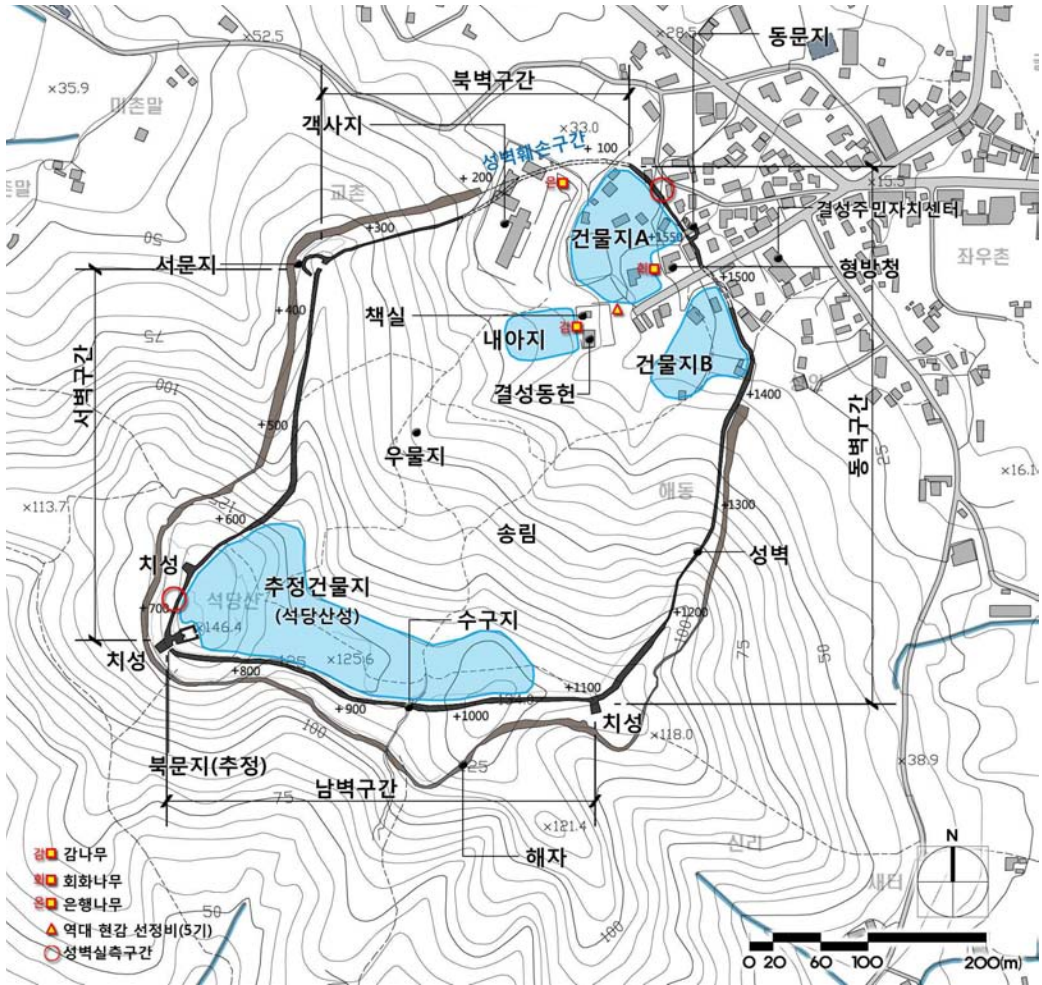


<그림 8> 1928년경의 객사전경

4. 결성읍성 현황

4-1. 성곽시설

총 성곽길이는 약 1,550m로 성벽은 전체적으로 석축으로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나 실측기점인 동문지를 중심으로 좌우의 약 70m가량의 성벽과 서문지주변의 일부지역, 남벽 약 400m



<그림 9> 결성읍성 현황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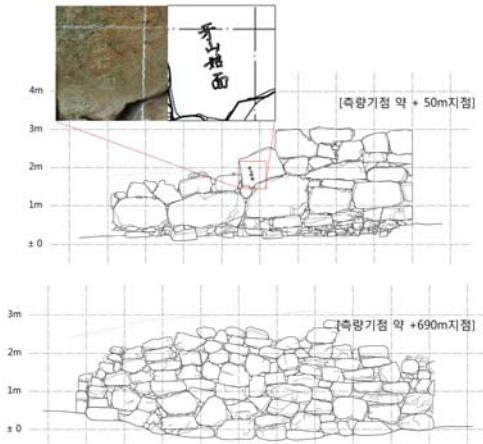
가량은 석축이 외부로 노출되어 양호하게 남아 있으나, 그 외 동·서벽의 약 800m 가량은 석축이 노출되지 않아 성벽의 위치만 확인가능하다. 1900년대 초 객사자리에 들어선 결성초등학교가 북벽의 일부구간을 훼손하여 성벽의 위치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동벽의 일부(실측기점 +1400m지점)지역은 산기슭에 형성된 민가에 의하여 유실되었다. 비교적 평탄지역은 석축성벽의 흔적이 확인이 되나 경사지의 성벽은 외관상 토축에 가까운 형상을 보이고 있다.

결성읍성의 경우 성벽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건축역사연구 제19권 6호 통권73호 2010년 12월

부분은 없으나, 동문지 북쪽의 북동벽(측량기점+00m~+90m)과 남서쪽 치 옆의 남서벽(협측부 측량기점 +670m~+730m), 그리고 남벽(측량기점 +730m~+1,100m) 일부의 성벽이 비교적 온전히 남아 있어 이 부분을 중심으로 성벽 실측조사를 실시하였다.(그림 10)

성벽 축조방식은 조선전기 성벽의 일반적인 축조방식¹⁷⁾을 따르고 있다. 하부는 대석(大石)을 사용하고 상부로 올라가면서는 작은 석재를 이용하여 막돌층지어쌓기 수법으로 축조하여

17) 김동욱,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조판, 서울대학교 출판부, 서울, 1999, 48쪽



<그림 10> 주요성벽구간 실측도

대체적으로 수평 가로줄눈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틈새에는 켜기돌을 끼웠다.

남벽과 동벽의 성벽 폭은 약 4.5m내외로 추정되며 성벽의 높이는 성벽이 무너져 내려 정확한 측량이 불가능하나 대략 3m~4m정도로 추정된다. 동벽의 경우 그림 10의 측량기점 +50m지점 측량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하부 제1단에 부정형의 대석(大石)을 사용하고 상부로 갈수록 성돌의 크기가 작아지는 모습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북벽의 경우 측량기점 +690m 측량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비교적 상하 성돌의 크기 차이는 적으나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동쪽 성벽의 경우, ‘아산시면(牙山始面)’이라하여 ‘충청도읍지’의 기록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기각역축(記刻役築)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문지는 반원형의 옹성을 각각 두른 동문지와 서문지, 두 곳이 확인되어 옹성이 2개 있었다는 문헌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동문지¹⁸⁾의 문폭은 3.5m 내외로 추정되는

데, 성문 한쪽 기점은 명확하게 확인되나 나머지 한쪽은 건물이 들어서서 과정에서 훼손되어 명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사용된 성돌은 직경 약 2m가량의 큰 성돌을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주변에 민가들이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성벽은 훼손되어 흔적만 찾을 수 있으며, 주변 민가의 담장에서 성문의 문초석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확인되었다.



<그림 11> 서문지 실측도

서문지의 문폭은 약 3.2m로 측량되었으며, 능선을 따라 성벽이 굴절되는 지점의 경사지에 반원형의 옹성을 설치하였다.

치성은 직사각형 평면의 3개소가 상부에 집중되어 설치되어 있다. 남벽의 양끝단에 각 1개소와 서벽 중간에 1개소가 있는데 산능선을 따라 성벽이 굴절되어 지는 지점에 설치되어 시계확보에 좋은 위치로 감시기능을 극대화 하

는 형식이었음을 기록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872년 지방지도 결성현지도에도 동문은 다른 건물보다 상세히 표현하여 문루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건립 연대는 분명치 않으나 당시의 이름은 ‘빈일루(賓日樓)’였다. 1689년(숙종 16) 문루를 개수하면서 ‘振衣樓’라고 개칭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기록된 충청도읍지에도 ‘振衣樓則城東門’이라 하여 동문의 이름이 진의루임을 밝히고 있다. 문루가 있던 대지가 1923년 매각되면서 문루가 멸실된 것으로 보인다.

18) 여지도서에 ‘東西二門而東門樓一層西門無樓閣’라하여 ‘결성읍성에는 동서 2개의 문이 있었으며, 그 중 동문의 1층의 문루가 있는 형식이었고 서문은 문루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동문이 1층 규모의 문루가 있



<그림 12> 동, 서문지 현황전경

고 있다.

서벽 중간지점(측량기점 +660m지점)에 위치한 치성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데, 평면의 규모는 길이 약 8.9m, 폭 약 6.4m로 직사각형 평면으로 치성위에 각루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주변에서 외편 등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각루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3 > 치성 및 황(해자) 현황전경

결성읍성의 황(隍)은 결성초등학교 구간과 건축물이 들어선 동벽구간을 제외한 전체구간에서 잘 보존되어 있다. 서벽구간과 동벽구간의 황은 성벽과 거의 나란한 형태로 설치되어 있으며, 석당산 정상부의 해자는 등고선을 따라 설치되어 성벽과의 거리가 일정치는 않다. 석당산 정상부의 해자는 또한 결성읍성의 전신으로 판단되는 석당산성의 성벽과도 일정부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2. 성내시설

1872년 지방지도 결성현지도에는 표현된 결성읍성 내 공해건물은 총 15채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지도서 및 충청도읍지에는 지방지도에 나타나지 않은 창고 및 누정의 이름이 나타나 적어도 결성읍성의 공해건물은 15채 이상의 규모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각 문헌의 기록 시기의 차이가 있어 명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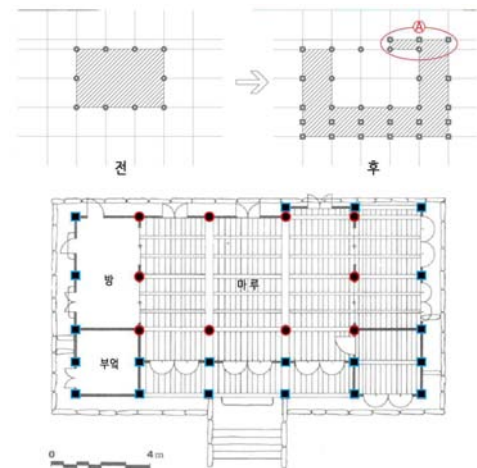
으며 객사 및 동헌을 중심으로 대략 15채 전후의 공해건물들이 동문주변을 중심으로 위치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존하는 건물은 동헌, 책실, 아문, 형방청 등 4동만 남아있다.

여지도서와 충청도읍지에서는 ‘望日軒即外東軒’이라 하여 외동헌의 이름이 ‘망일헌’이었음이 기록되어 있으며, 결성현지도(1872)에는 동헌 외에 ‘외동헌’이란 건물이 별도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현 동헌 건물을 망일헌이라 부르는 것은 다소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

동헌¹⁹⁾의 평면구성은 두리기등과 각기등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원래 두리기등의 정면 3칸, 측면 2칸의 건물을 전, 좌, 우로 한



<그림 14> 결성동헌 전경



<그림 15> 결성동헌(망일헌) 평면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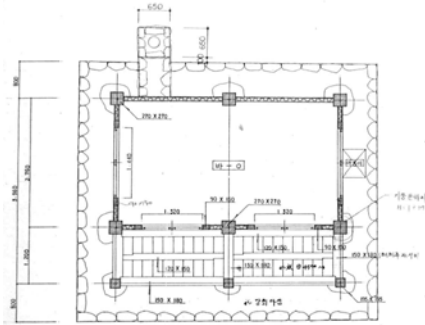
19) 1914년 행정제도 개편으로 결성현이 홍주목과 합군되어 ‘홍성군’이 되면서 동헌은 그 역할을 잃어 면사무소 또는 결성초등학교의 부속 건물로 사용되어지다 1982년 해체·복원공사를 실시하여 1988년 복원공사를 마쳤으며, 2004년 ‘망일헌(望日軒)’으로 현판을 달았다.

칸을 내달아 확장하는 과정에서 각기둥을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그림 15>의 A부분의 덧대어진 기둥과 생략된 기둥의 배치에서 두리기둥과 각기둥이 각기 다른 시기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15>의 확장된 평면 부분의 지붕이 기존의 지붕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어내림지



<그림 16> 책실 및 아문 전경



<그림 17> 책실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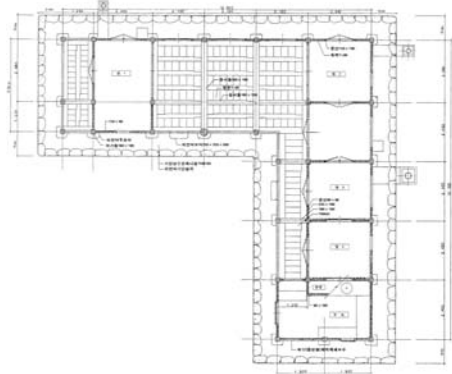
붕 형태를 취하고 있다.

결성아문은 동헌입구에 솟을삼문형식으로 건립된 정면 3칸, 측면 1칸의 출입문으로 1988년 복원하였다. 방형주초석에 각주를 세웠으며, 건물 전면에 2004년에 제작한 ‘결성아문(潔城衙門)’이라고 쓰여진 현판이 걸려있다.

책실²⁰⁾은 책·문서 등을 보관하면서 현감의 자제와 아객(衙客)이 거처하던 곳으로 현재 동헌 담장 안쪽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

20) 1988년 보수공사를 마치고 1989년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06호로 지정되었다. 또한 1872년 지방지도에 의하면 동헌영역 내에 책실과 함께 부속기능의 급창방(及唱房)이 있었으며, 장방(長房)이 현재의 아문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형방청은 순교가 거처하면서 지방 치안을 담당했던 관청으로 결성현지도 상에서 동문과 동헌을 연결한 축의 좌측에 담장으로 구획되어 ‘형장청(刑將廳)’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림 18> 형방청 평면도

1896년(고종 33) 개건시 작청으로 사용되었던 내력도 있으며, 다시 형방(刑房)과 순검청(巡檢廳)으로 개칭하는 등 여러차례 진용되면서 내부시설에 많은 변형이 있었다. 1909년 7월 재개축을 하여 사용하다가 1914년 행정제도 개편에 따라 폐청된 후, 1915년 3월 1일부터 1984년까지 경찰관 주재소 및 지서로 사용되었다. 경찰관서가 신청사로 이주하면서 건물이 방치된 채 퇴락되어 왔으나 1988년 복원 및 문화재지정 신청을 통해 1989년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06호로 지정되었다.²¹⁾

4-4. 기타시설

객사는 건립 당시의 명칭은 ‘결성관(潔城館)’이었으나 중수 후에 ‘결성관(結城館)’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여지도서 기록에 41칸 규모의 객관이었으며, 위치는 현 결성초등학교 자리로 1911년 2월 당시 결성보통학

21) 일부 기록에서 현재의 형방청은 책실로 문화재자료로 지정될 시 명칭이 잘못된 것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정확한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별도의 연구 및 고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가 창설되면서 일부를 개조하여 학교 건물로 사용하였다. 이후, 객사는 점진적으로 철거가 진행되어 1964년 결성초등학교 숙직실로 사용하고 있던 마지막 건물을 노후 철거하였다.²²⁾

내동헌은 여지도서의 기록에 의하면 ‘평근당(平近堂)’이고 규모는 5칸이라고 하였으며, 충청도읍지에는 ‘평근대(平近臺)’라고 기록되어 있다. 고지도 상에 나타는 위치는 동헌의 후편, 즉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담장으로 구획, 독립된 영역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수 및 보수시기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며,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결성군이 없어진 후, 공가로 남아 있다가 1917년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1872년 지방지도에 나타나고 있는 성내 건물로는 공고(工庫), 군기고(軍器庫), 수미고(需米庫), 환미고(還米庫) 등의 창고시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동의 편리를 위해 동문 주변의 평지에 분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향청(鄉廳), 현사(縣司), 작청(作廳), 외동헌(外東軒) 등도 동헌과 객사주변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훼손되어 그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충청도읍지 결성현 부분의 누정조(樓亭條)에는 ‘雙槐堂在衙後南澗覆以茅草’라 하여 ‘쌍괴당(雙槐堂)’이라는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성현지도에서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록을 토대로 추정해 볼 때, 관아 후편에 위치하고 있던 풀을 이어만든 띠 형태의 지붕을 가진 건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의 용도 및 목적, 규모는 기록이 부족하여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성내 주요 시설로 유사시 농성을 위한 취수시설을 들 수 있는데 세종실록지리지 기록에는

22) 결성관(객사)의 모습은 그림 8에서 확인되는 결성공립보통학교 14회 졸업기념(1928년경) 사진에 가장 잘 남아있는데 당시까지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결성읍성 내 우물이 있어 여름이나 겨울이나 마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후의 여러 지리지에 표기된 우물은 최고 6개가 있었다고 구체적인 개수까지 밝히고 있으나, 현재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곳은 산 중심부에 공원으로 정비한 지역의 약수터가 이들 중 한곳으로 추정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문헌조사, 관련자료 조사 및 현장 조사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연해읍성인 결성읍성에 관해 연구하였다.

조선시대 초기 연해읍성 축조시기에 읍치의 이전과 확장 통해 현재의 자리에 최종적으로 위치하게 된 결성읍성은 산성과 평지성의 장점을 모두 취하고 있으며, 같은 시기 축조된 연해읍성들과 동일한 방식과 규모로 축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성곽의 규모는 문화재청 등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와 달리 성곽의 규모는 총 둘레 1,550m로 축조당시 사용된 축척은 포백척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성곽외부로는 황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성곽시설로 직사각형 평면의 치가 성벽의 굴절기점마다 1개소씩 3개소가 확인되며, 출입시설로는 동문지와 서문지가 확인되었다. 성내에는 조선후기를 기준으로 15채 내외의 공해건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훼손·멸실되고, 동헌과 형장청은 최근에 해체복원하였다.

결성읍성은 조선초기 축조된 읍성들 중 축조과정에서 읍치이전과 확장의 과정을 거쳐 완축되었는데, 이러한 이음의 이유는 첫째, 석당산성의 입지적 이점을 활용하여 방어적 성격을 강화하였고, 둘째, 구릉지역까지 성을 확장하여 평상시 접근성과 유사시 농성을 위한 충분한 공간과 취수시설을 확보하였으며, 셋째, 해안감

시가 가능한 지형적 이점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결성읍성의 현재 상황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대부분 훼손되어지고 성곽시설 일부와 현대에 복원된 시설이 일부 남아있다. 읍치의 기능을 담당하던 성내 시설물은 대부분 훼손되어 모습을 찾을 수 없으며, 현장여건과 1872년 지도를 비교분석하여 보면, 건물지로 확실시 되는 곳은 대략 4곳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건물지는 그림 9의 건물지 A 지역으로 1872년 결성현 지도에 표기된 대부분의 건물들이 이곳에 위치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곳이다. 두 번째 건물지는 현 동헌(현 망일현) 후편 내아지로 파악되는 곳이다. 이 곳은 1872년 지도는 물론 1900년대 초까지 건물이 잔존하였다는 지역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볼 때 내아지가 확실시되거나 농경지로 활용하면서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주초석 등을 파악할 수 없으나 적심 등은 일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건물지는 건물지 B 지역으로 1872년 지도에서는 공지로 표현되어 있으나 지형조건상 이전시대의 건물들이 입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석당산 정상부(석당산성)지역이다. 이 지역은 이읍초기 석당산성의 건물들이 다수 입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지역의 발굴조사는 결성읍성의 초기 성격 및 역사적 가치를 구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결성지역은 삼국시대 이전시기부터 서해안 지역의 주요 거점으로 추정되나 조선시대 이전의 기록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복원의 시점은 기록이 가장 잘 남아 있는 조선후기를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내 시설들의 입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발굴조사가 전제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고문헌
世宗實錄地理志/新增東國輿地勝覽/東國輿地志/輿地圖書/忠淸道邑誌/大東地志/大東輿地圖 등
2.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홍성군 결성지역 지표조사보고 1-신금성지』, 결성읍성편, 충남대학교 출판부, 1987
3. 심정보, 『한국의 읍성연구-충남지방을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1995
4. 손영식, 『한국의 성곽』, 주류성, 2009
5. 김동욱,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6. 결성면지 편찬위원회, 『유서깊은 결성』, 결성면지 편찬위원회, 1994
7.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결성읍성 정비기본계획』, 홍성군, 2008
8.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의 전통건축 1-관아건축』, 대한건축사협회, 1992
9. 차용걸, 「고려말·조선전기 대왜 관방사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8
10. 황중현, 「산성의 정비복원 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11.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웹사이트 <http://kyujanggak.snu.ac.kr/>

접수(2010. 6. 15)

수정(1차: 2010. 10. 29, 2차: 2010. 12. 3)

게재확정(2010. 12. 16)

A Study on Gyeolseong-Eupseong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Kim, Hoe-Jung

(Researcher, ChungNam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Lee, Jeong-Soo

(Pr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ncludes a review of the relevant literature and data on the Gyeolseong Eupseong, a coastal castle town of the Joseon Period.

During the process of building the Gyeolseong Eupseong, Eupchi(administrative office) was transferred to several different locations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o strengthen defensive capabilities by utilizing the locational advantages of the Seokdang Mountain Fortress, second, to secure sufficient space for holding the castle and have access to water in times of emergencies, third, to strengthen coastal defence by utilizing geographical advantages.

Most of the Gyeolseong Eupseong was damag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t present, there remain only part of the castle's facilities and some facilities that were restored later in modern times; 4 building sites have been identified. Remaining and destructed buildings can be identified through old maps(the local maps of 1872) and Zirizi and Eupzi(geography books). Also identified were 2 castle gate sites where a 1,500m-long stone castle wall and an ongseong(a crescent-shaped defensive structure), 5 chiseongs, and a most were constructed.

The Gyeolseong area is assumed to have been a strategic foothold to defend the west coast from the days before the Three Kingdom Period.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any records created before the Joseon Period. Therefore, the time of the restoration of the Eupchi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records created in the late Joseon Period. Finally, excavation work needs to be done to identify the locations of the castle's facilities.

Keywords : Eupseong, Joseon Dynasty Period, Gyeolseong Eupseong, Restoration
